

情報提供이 입院患者不安解消에 미치는效果

朴 貞 玉

高麗大學校 大學院 看護學科

〈指導：姜潤姬 副教授〉

目 次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2. 調査道具
2. 仮 說	3. 統計處理方法
3. 用語의 定義	IV. 調査成績
4. 研究의 制限点	V. 論 議
II. 終來의 研究	VI. 結 論
III. 調査方法 및 節次	参考文献
1. 対象標準 및 節次	英文抄錄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近者에 와서 治療医学과 預防医学이 急進的으로 発達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入院患者의 数字는 每年 増加一路에 있다.¹⁾

이에 수반하여 增加해 가는 患者들의 看護要求도 점점 높아지고 넓어져서 苦痛과 不便을 덜어주기 바라는 肉体의이며 소극적 병주를 넘어서 心理的 安定을 포함한 全般的인 健康增進에 까지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洪²⁾은 看護事業을 患者와 看護員의 對人關係의 連続이라고 말하며 洪³⁾은 오늘날의 看護는 다양한 看護要求를 지닌 한 人間의 問題點을 계속 發

見하고 解決해 가는 問題解決過程으로서 個人과 家族과 集團을 돋는데 그 目的을 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推勢에 따라 近来 欧美 여러나라에서는 社會心理学의 看護에 関한 研究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入院患者들이 入院期間中 겪게 되는 不安의 根源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情報提供, 即 健康教育(informative-health teaching)이 不安解消에 效果的인가에 関한 광범위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그들의 研究에 의하면 入院不安心은 주로 患者들이 病院이란 生疎한 環境에 놓여지는 것과 病院生活中

1) 김유경 : 한국 간호 인력필요의 분석및 추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권 2호, 1973.

2) 흥우순 : 편저, 간호학 : 학리와 실제, 대한간호협회출판부, 서울, 1969.

3) 흥여신 : 간호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제3권 5호, 대한간호협회출판부, 1974. 9-10월호.

4) J. S. Dodge: Factors related to patient's perception of their cognitive needs, Nurs. Res., 18: 502-513, Nov.-Dec. 1969.

5) J. S. Dodge: What patient should be told, AJN, 72: 1852-54, Oct. 1972.

6) D. Ernes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hospital patient relationship: What the patient really wants from the hospital, 83: 51-54, Sep. 1954.

7) M. A. Nield: The effect of health teaching on the anxiety level of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Nurs. Res., 20: 537-541, Nov.-Dec., 1971.

8) A. M. Putt: One experiment in nursing adults with peptic ulcers, Nurs. Res., 19: 484-494, Nov.-Dec. 1950.

9) S. M. Lagina: A computer program to diagnose anxiety levels, Nurs. Res., 20: 484-492, Nov.-Dec. 1971.

에 危脅을 느끼는 여러事態를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事前に 알고있지 못하므로 야기되는 공포심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情報を 받지 못하기 때문에加重되는 것으로서 이는 事前에 充分한情報 提供해 줌으로서 解消시킬 수 있고 따라서 恢復도 빨라진다고 보고 했다.

姜¹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社会心理的 看護領域은 매우 度外視되어 있고 특히 入院不安과 情報提供과의 関係에 대한 研究는 거의 찾기 어렵다.

最近 国内에는 綜合病院을 위시하여 여러 病院들이 大型화되어 가고 病院內의 諸般制度가 急激히 現代化되면서 高度로 機械化 또는 自動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患者와 看護員과의 만남이 欠如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몇몇 研究의 결과로는 国内 看護員들이 患者問題 解決中心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의료보조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患者的 入院不安은 이미 報告된 外國患者의 그것에 比하여 큰 差異가 없을 것으로 予想된다.

著者は 入院患者의 不安은 意思疎通의 断切로 因한 不安과는 直接의인 関係가 있으며 專門職 看護業務를 通해서 患者の 不安全感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고 同時に 患者の 不安解消의 程度는 効果의in 看護業務의 評価로 看做할 수 있다는 仮定밑에서 入院患者들의 情報提供과 入院不安과의 関係를 밝히고자 本 研究를 試圖하였다.

2. 仮 説

本 研究를 위하여 설정된 仮説은 다음과 같다.

- 1) 계획된 情報提供을 받은 實驗群이 받지 못한 对照群에 比해 情報要求의 滿足度가 높을 것이다.
- 2) 入院期間 10日以上인 患者群이 10日未滿인 患者群에 比해 더 充分한 情報를 받았을 것이다.
- 3) 对照群보다 實驗群이 患者自身들이 重要하다고 判斷하는 事項에 있어서 더 높은 情報要求의 滿足度를 보일 것이다.
- 4) 계획된 情報提供을 받은 實驗群은 对照群에 比하여 不安度가 낮을 것이다.
- 5) 情報要求의 滿足度와 入院不安度는 逆相関關係를 보일 것이다.

3. 用語의 定義

本 研究에 使用된 用語는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진다.

1) 情報提供 即 健康教育(informativeness-health teaching) : 이것은 看護員이 患者的 疾病과 健康에 関聯된 情報를 얻고 그것을 適用하는데 있어서 患者를 돋는 活動과 病院에서 실시되는 여러가지 처치 및 세반 규정에 관련하여 患者에게 提供하는 情報(information) 教示(instruction) 및 健康教育(health teaching)을 意味한다.

2) 入院不安(hospitalization anxiety) : 이것은 患者들이 入院期間中 겪는 全般的인 心的負担을 内包하고 있다.

4. 研究의 制限点

1) 調査對象을 慶北大学 医科大学 附属病院 入院患者中 内科領域患者만을 對象으로 하였으므로 科別로 特수성을 지닌 患者 모두에게 一般化할 수는 없다.

2) 兩集団의 患者를 社会的 特性이나 診斷 治療 및 檢查別로 대등한 患者로 구성하려 했으나 集團間의 差를 완전히 排除하지는 못하였다.

3) 調査者의 個人能力 및 環境에 의해 調査結果에 差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이를 最大로 排除하기 위하여 兩群의 調査者를 交代하여 實시 하였지만 若干의 差가 있을 것이다.

II. 終來의 研究

病院에 入院한 모든 患者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不安을 경험하게 되고 이 不安을 소위 入院不安(hospitalization anxiety)이라고 불러왔다.

이 入院不安의 原因은 主로 病院이란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 대해 환자가 겪는 두려움, 병원 생활에의 적응,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未知의 事項들에 대한 두려움, 疾病自体, 治療 및 看護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욕구를 充足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患者的 安全感에 대한 위협으로 招來하게 된다.

入院不安에 대한 研究는 특히 欧美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널리 研究되어지고 있다.^{11~15)} 入院不安은 거의 피

10) 강윤희 : 간호기록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1호, 1974. P.30.

11) S. M. Lagina: Op. cit.

12) Basic system Inc. Anxiety: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ed instruction) AJN, 65: 129-152, Sep. 1965.

13) M. P. Neylan: Anxiety, AJN, 62: 110-111, May 1962.

14) B. J. Volicer: Perceived stress levels of event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Nurs. Res., 22: 491-497, Nov. - Dec. 1973.

15) F. E. Lucente: and S. Fleck study of Hospitalization anxiety in 408 Medical and surgical patients, psychos. Med., 34: 304-312, July-Aug. 1972.

혹은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輕微할 때에는 약간의不便으로 그치거나 오히려 治療나 看護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단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生理的機能에 變調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患者的 치유와 회복에 큰 障碍가 된다고 한다.^{16~20)}

入院不安에 관한 研究로서는 Volicer^{21,22)}는 Holmes 와 Rale의 社會再適應等級尺度(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의 方法으로 患者와 一般人 그리고 医療人들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經濟的인 것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診斷, 治療 및 看護過程에 관한 說明不足과 看護要員들의 무관심의 순위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여러 学者들이 入院患者로 하여금 入院不安을 解消하고 효율적 治療, 看護, 그리고 恢復을 도우는데 있어서 看護員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23~28)} 이 方面의 研究는 主로 看護員의 情報提供(informativeness) 또는 健康教育(health teaching)을 重點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Pohl²⁹⁾은 1,500名의 看護員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 健康教育은 看護員의 責任이라고 規定되었고 實제로 健康education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Smith³⁰⁾도 情報提供의 重要性을 論하면서 實제 重要한 것은 疾病自體에 대한 지식보다 看護員과 患者와의 意思疎通이라고 結論자우므로서 注目을 끌었다. 특정한 患者를 대상으로 한 研究는 Egber³¹⁾, Healy³²⁾가 外科患者의 手術前 情報提供에 관한 研究에서 情報提供이 患者的 恢復과 入院不安의 解消에 좋은 結果를 얻었다고 하였다. Dodge^{33,34)}, Pratt³⁵⁾ 등도 情報提供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Putt³⁶⁾는 胃潰瘍患者에서도 情報提供이 心理的支援보다 患者에게 더 效果의이 있다고 報告한 바 있다. 以上과 類似한 國內研究로서는 韓³⁷⁾, 金³⁸⁾, 및 沈³⁹⁾ 등의 手術前患者에게 心理的支援과 教示가 情緒安定과 입원기간 단축에 효과적이였음을 該했다.

더 나아가서 入院患者의 不安全感을 除去하는 具体的인 方法을 論한 研究로서는 Myers⁴⁰⁾, Johnson⁴¹⁾,

- 16) I. L. Janis: Psychological stress: psychoanalytic and behavioral studies of surgical pati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8.
- 17) M. P. Neylan: Op. cit.
- 18) 전산초 :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4 권 1 호, 1974. P. 9.
- 19) Basic system, Inc.: Op. cit.
- 20) Hans. Syle: The stress syndrome, AJN, 65: 97~99, Mar. 1965.
- 21) B. J. Volicer: P1973. Op. cit.
- 22) B. J. Volicer: 1974. Op. cit
- 23) M. P. Neylan: Op. cit.
- 24) N. J. Pender: Patient identification of health information received during hospitalization, Nurs. Res., 23: 262~267, May-June 1974.
- 25) M. L. Pohl: Teaching activities of the nursing practitioner, Nurs. Res., 14: 4~11, Winter 1975.
- 26) M. C. Dye: Clarifying patients Communications, AJN, 63: 56~59, Aug. 1963.
- 27) William Tarnower: Psychological needs of the hospitalized patient, Nursing outlook, 13: 28~30, July 1965.
- 28) S. I. Hay and H. C. Anderson: Are nurses meeting patient's needs?, AJN, 63: 96~99, Dec. 1963.
- 29) M. L. Pohl: Op. cit., p. 9.
- 30) D. M. Smith: Myth and Method in Nursing practice, AJN, 64: 68~72, Feb. 1964.
- 31) L. D. Egbert: Reduction of postoperative pain by encouragement and instruction of patient, N. J. Medicine, 270: 825~827, Apr. 16, 1964.
- 32) K. M. Healy: Does preoperative instruction make a difference?, AJN, 68: 62~67, Jan. 1968.
- 33) J. S. Dodge: Op. cit., 1969.
- 34) J. S. Dodge: Op. cit., 1972.
- 35) Lois. Pratt and Others: Physicians' views on the level of medical information among patients, Am J Public Health, 47: 1277~88, Oct. 1957.
- 36) A. M. Putt: Op. cit.
- 37) 한윤복 : 안위대책 간호가 수술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 3 권 1 호, 1972. P. P. 85~95.
- 38) 김조자 : 수술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1.
- 39) 심치정 : 소아의 수술전 환자교육이 신체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 4 권 2 호, 1974. P. P. 44~54.
- 40) M. E. Meyers: The effect of Types of communication on patients reactions to stress, Nurs. Res., 13: 126~131, Spring 1964.
- 41) J. E. Johnson: Approches to the study of nursing questions and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effects of structuring patients expectations on their reactions to threatening events. Nurs. Res., 21: 499~504, Nov.~Dec. 1972 .

Baland⁴²⁾ 등이 있으며 이들은 病院에서 시행되는 많은 处置(procedure)가 患者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不安感을 조성하는데 이를 感少시키는데는 이처치의 前後過程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不安解消의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했다. 또 Vincent⁴³⁾는 情報提供을 無分別하게 많이 하는것 보다 적절한 情報의 選択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患者들이 알기를 바라는 情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研究로서 Linehan,⁴⁴⁾ Pender⁴⁵⁾는 치료과정, 간호업무 및 검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더 많은 대화의 유통 그리고 退院에 관한 情報等이 患者들이 要求하는 것이라고 报告했다. 田⁴⁶⁾은 檢查를 받는 患者를 대상으로 研究한結果 大部分의 患者들이 檢查에 관한 諸般事項에 대한 情報의 提供을 원하고 있고 이의 不足을 크게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Dodge⁴⁷⁾는 入院患者의 不安은 “患者自身이 重視하는 情報提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므로 患者中心의 対話 to 強調하였다. 또한 Putt⁴⁸⁾는 看護員이 患者에게 주는 情報가 그 内容이 皮相의 일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산뜻 이해하여 情報提供에 차질이 생기며 그 법위와 方法이 非効果의이라고 비판하였다.

Schmitt⁴⁹⁾는 患者들이 要求하는 情報는 病院職員들의 업무수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情報가 아니라 患者의 慾求充足을 위한 内容 即 患者로서의 役割을 이행하는데 必要한 内容들이라고 지적하였고 Lindman⁵⁰⁾과 Nield⁵¹⁾는 情報提供을 個人과 集團으로 나누어 調査한結果, 前者は 集團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後者は 個人으로 하는 것이 効果의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상의 研究結果와는 달리 情報提供이 入院患者의 不安解消에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며 Keller⁵²⁾는 手術前의 患者 5名에게 不安을 덜기 위해 手術前에 情報提供을 한結果 오히려 不安

度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Nield⁵³⁾는 健康教育을 받은 患者群과 받지 못한 患者群사이에 不安度의 有意한 差를 認定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以上的 文獻的 考察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보면 情報提供이 患者不安을 解消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겠으나 그 伝達方法이 知識의 기계적 伝達에 너무 치중하거나 患者와 看護員사이의 人間關係에 있어 充分한 意思疎通을 맺지 못하면 좋지 못한 結果도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III. 調査方法 및 節次

1. 對象標準 및 節次

1975年 1月初부터 3月末까지 慶北大学校 医科大学附属病院에 4日以上 30日間 入院한 内科患者中 特殊治療나 特別検査를 받는 患者, 意識이 混濁한 患者, 応急患者등을 除外한 男女 各 50名씩 100名을 對象으로 하여 계획된 情報를 提供받은 実驗群(50名) 对照群(50名)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調査對象의 性別, 年令, 教育程度 및 入院期間은 表 1과 같다.

實驗群 50名에게는 事前에 훈련 받은 해당 看護員이 對象患者入院時 첫 面談을 갖고 患者에게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情報로 구성된 說問을 中心으로 하여 最大限의 情報를 提供하였고 그후 20分동안 의문스러운 点을 問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面談過程에서 患者の感情이 充分히 表出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눈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후 매일 2回以上 病室을 방문하여 그때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情報를 入院期間中 계속해서 提供하였다.

情報의 内容은 첫째, 入退院에 関한 사항, 둘째, 治療 및 看護, 셋째, 檢查·診斷·予後, 넷째, 患者

42) L. L. Beland: Clinical Nursing, 2d ed. New York, Macmillan Co., 1970.

43) Pauline, Vincent: Factors influencing patient noncompliance: a theoretical approach, Nurs. Res., 20: 509-515, Nov.-Dec. 1971.

44) D. T. Linehan: What does the patient want to know?, AJN, 66: 1066-70, May 1966.

45) N. J. Pender: Op. cit., p. 265.

46) 전산초 외 2명: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와 태도 및 준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호59권, 1972. P.P. 18-30.

47) J. S. Dodge: Op. cit., 1972.

48) A. M. Putt: Op. cit.

49) F. E. Schmitt: Psychological preparation of surgical patients, Nurs. Res., 22: 108-116, Apr. 1973.

50) C. A. Lindman: Nursing intervention with presurgical patient, Nurs. Res., 21: 196-209, May-June 1972.

51) M. A. Nield: Op. cit., P. 540.

52) C. M. Keller: Relationship of anxiety change and an information-giving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65.)

53) M. A. Nield: Op. cit., pp. 537-41.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sex, age, educational state and length of hospitalization

	Experimental group (N=50)	Control group (N=50)	Total (N=100)
Sex			
Male	25	25	50
Female	25	25	50
Age (years)			
16~29	12	26	38
30~49	19	16	35
50~69	19	8	27
Educational state			
Primary	15	21	36
Secondary	17	19	36
Higher	18	10	28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s)			
< 10	24	25	49
> 10	26	25	51

의 家族의 健康教育에 関한 사항등을 포함했다. 対 照群 50名은 같은 期間에 日常看護만을 받은 患者로 구성하였으며 調査期間동안 患者는 自己가 調査對象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面談자는 慶北医大 看護学科 4 学年 学生 4名을 選拔하여 事前에 훈련시킨 후 両集團에 2名씩 配置하였다. 面談時間은 午後 6 時 30分부터 9時까지 비 고적 처치가 적은 時間을 利用하였고 面談記錄자는 弘服을 着用하고 誘導질문을 피하도록 하였다.

2. 調査道具

1) 入院患者들에 对한 情報提供尺度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HIS)) : 이것은 本 研究者가 患者들이 入院期間中 받은 情報에 对한 滿足度를 測定하기 위하여 患者들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患者들이 自身이 記錄하도록 하고 여기에 參考文献에서 사용된 내용을 첨가하여 1974年 9月 10日부터 20日까지 그리고 11月 20日과 23日 2回에 걸쳐 各 20名씩을 对象으로 하는 先行調査를 施行하여 本 尺度를 補完하였다. 24個 問項으로 구성된 本 尺度는 Likert-type⁵⁴⁾

의 意見尺度測定法을 적용하여

대단히 만족하다 : 5点

만족하다 : 4点

보통이다 : 3点

부족하다 : 2点

54) 강봉규의 2명 : 간호연구법, 수문사, 서울, 1974, P. 220.

55) F. E. Lucente and S. Fleck: Op. Cit. P. 307.

전연 없다 : 1点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해 당란에 “V”표로 표하도록 하였다. (부록 1 참조)

2) 入院不安尺度 (hospitalization anxiety scale (HAS)) : Lucente⁵⁵⁾등이 Taylor의 表出不安尺度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를 入院患者에게 맞도록 만든道具로서 모두 40個의 問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問項에 대한 应答이

자 주 : 2点

때때로 : 1점

전 무 : 0점

예 : 1점

아니오 : 0점으로 하고 最高不安度는 73点으로 되어 있다. (부록 2 참조)

3. 資料処理方法

1) 両群의 情報提供要求의 滿足度의 差는 両群의 平均值을 내고 그 平均의 差의 有意性을 t-test로 檢定하였다.

2) 入院期間 10日以内와 10日以上인 患者의 情報要求의 滿足度는 両群의 平均值의 差의 有意性을 t-test로 檢定하였다.

3) 対照群보다 實驗群이 患者自身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事項에 있어서 더 높은 情報要求의 滿足度를 보이는지는 重要度順位와 滿足度順位의 相関을 보았다. 相關係数는 Spearman의 順位差相關係數를 適用하였다.

4) 両群의 不安度의 差는 그 平均值의 差의 有意性을 t-test로 檢定하였다.

5) 情報要求의 滿足度와 入院不安度의 相関을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算出方法을 適用하였다.

IV. 調査成績

수집된 자료를 各 仮説別로 분석 검증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획된 情報提供을 받은 實驗群이 받지 못한 対照群’에 比해 情報要求의 滿足度가 높을 것이다에 대하여 : 表 2와 같이 両群의 情報提供尺度의 平均值는 實驗群에서는 2.81 ± 0.68 , 対照群에서는 2.14 ± 0.61 로서 両群사이에 有意한 差를 認定할 수 있으므로 ($t=5.1$, $P<0.01$) 仮説 1은 긍정되었다.

2. ‘入院期間 10日以上인 患者群이 10日未満인 患者群에 比해 더 充分한 情報를 받았을 것이다’에 대하여 : 入院期間別 情報要求의 滿足度의 差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實驗群에서는 入院 10日以下群과의 사이에 有意的 差를 볼 수 없었고 ($t=1.06$, $P>$

Table 2. Comparison of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50)	Control group (N=50)
Mean	2.81	2.14
S. D.	0.68	0.61
t = 5.14 d. f. = 98 P < 0.01		

0.05), 对照群에서도 両群사이에 有意한 差를 볼 수 없으므로 ($t=0.05$, $P>0.05$) 仮説 2는 부정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by length of hospitalization

	Experimental group (N=50)	Control group (N=50)
days	$\langle 10 (N=25) \rangle$ 10 (N=25)	$\langle 10 (N=24) \rangle$ 10 (N=26)
Mean	2.23 2.05	2.82 2.81
S. D.	0.64 0.57	0.69 0.06
t = 1.06 d. f. = 48 P > 0.05	t = 0.05 d. f. = 48 P > 0.05	

3. ‘对照群보다 实驗群이 患者自身들이 重要하다고 여기는 事項에 있어서 더 높은 情報要求의 滿足度를 보일 것이다’에 대하여：項目別 情報提供要求의 滿足度順位와 患者들이 지적한 重要度順位와의 相関을 Spearman의 順位差相関係수로 산출한 結果는 表 4와 같다. 入退院에 関한 項目은 ‘実驗群에서는 相関係수 0.35, 对照群에서는 -0.31, 治療 및 看護項目에서 ‘実驗群에서는 0.54, 对照群에서는 0.57, 檢查, 診斷 및 予後에 関한 項目은 ‘実驗群에서는 0.50 对照群에서는 -0.55, 患者와 家族의 健康教育에 関한 項目에서는 ‘実驗群에서는 0.99, 对照群에서는 0.85로서 대체로 实驗群은 对照群에 比해 높은 相関을 보여 仮説 3은 部分적으로 긍정되었다.

4. ‘계획된 情報提供을 받은 实驗群은 对照群에 比해 不安度가 낮을 것이다’에 대하여：両群에 있어서 入院不安度值의 差는 表 5와 같이 实驗群에서는 21.5 ± 9.4 , 对照群에서는 25.8 ± 10.9 로서 有意한 差($P<0.05$)를 보여 仮説 4는 긍정되었다.

Table 4. Rank difference correlation coefficient of mean value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and patient perceived importance order

Rank order of mean value of HIS	Categories	Rank order of patient perceived importance	
		Experimental (N=50)	Control (N=50)
Admission and discharge	r=0.35 t=2.58 $\star\star$	r=-0.31 t=2.26 $\star\star$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ies	r=0.54 t=4.44 $\star\star$	r=0.57 t=4.80 $\star\star$	
Diagnostic test, diagnosis and prognosis	r=0.50 t=4.00 $\star\star$	r=-0.05 t=0.20	
Health teaching for the patient and family	r=0.99 t=15.33 $\star\star$	r=0.58 t=11.2 $\star\star$	

☆: P > 0.05 ☆☆: P < 0.01

Table 5. Comparison of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anxie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N=50)	Control group (N=50)
Mean	21.4	25.8
S. D.	9.4	10.9
t = 2.11 d. f. = 98 P < 0.05		

5. ‘情報要求의 滿足度와 入院不安度는 逆相関을 보일 것이다’에 대하여：両群의 情報提供満足度와 入院不安度와의 相関을 算出한 結果는 表 6과 같이 实驗群에서의 相關係数는 -0.31, 对照群에서는 -0.14로서 实驗群의 情報提供満足度와 入院不安度가 1%수준에서 逆相関을 나타내는 反面 对照群에서는 有意한 逆相関을 볼 수 없었음으로 仮説 5는 부정되었다.

그리고 그외에 調査対象의 性別, 年令別 및 教育程度別에 따른 情報提供의 滿足度에 对한 結果는 両群에서 다 같이 意義있는 差를 볼 수 없었다.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of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and hospitalization anxiety.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Experimental group (N=50)	Control group (N=50)
Hospitalization anxiety	Experimental group	-0.31 [*] (P<0.01)	—
	Control group	—	-0.14 ^{**} (P>0.05)

* : $\bar{X} = 2.81 \pm 0.68$
** : $\bar{X}' = 2.14 \pm 0.61$
Y = 21.46 ± 9.36
Y' = 25.82 ± 10.87

V. 論 議

계획된 情報提供을 받은 患者群이 情報에 对한 滿足度가 対照群에 比해 높게 나타나 看護員들의 조사⁵⁶⁾인 情報提供의 必要性이 증명되었다. 받은 情報에 대한 滿足度가 調査對象의 性別, 年令別 教育程度에 따른 有り한 差를 볼 수 없었던 本研究者の 成績은 Fender⁵⁶⁾와 田⁵⁷⁾의 結果와는 비슷하나 Dodge⁵⁸⁾의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情報要求가 많다는 結果와는 相異하다.

入院期間別로 본 情報提供滿足度가 兩群 모두 有り한 差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入院期間이 길 수록 情報提供滿足度가 높고 患者的 情報要求가 해소될 것으로予想했지만 本結果에서는 계속 情報要求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対照群보다 實驗群이 患者自身들이 重要하다고 여기는 事項에 대하여 더 높은 情

報에 대한 滿足度를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한 項目別 滿足度順位와 患者들이 지적한 重要度順位와의 相関關係는 實驗群에서는 네 項目에서 모두 높은 相關關係를 보인 反面, 対照群에서는 人退院에 대한 項目과 檢查診斷과 予後에 대한 項目이 逆相関을 나타내었으며 治療 및 看護項目와 患者와 家族에 대한 健康教育이 正相関을 나타내어 實驗群에서는 患者的 要求에 가까운 看護를 받은 反面 対照群에서는 患者에게 不適當한 情報가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患者들이 重要하다고 지적한 情報重要度에서는 入退院에 関한 事項中에서 兩群이 다같이 “退院後 계속할 治療·看護 및 活動許容範囲에 대한 説明”이 가장 重要하다고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Linehan⁵⁹⁾의 調査結果와 대체로 부합된다. 治療 및 看護 項目에서는 兩群에서 모두 “治療過程에 대한 説明”的 要求가 가장 많았고 檢查·診斷 및 予後에 관한 項目에서는 兩群 모두 “検査結果에 대한 説明要求”가 가장 많았다. 患者와 家族에 대한 健康教育事項에서는 實驗群에서는 “현재 앓고 있는 病에 대한 説明”과 계속해야 하는 “治療·檢査 그리고 看護에 대한 説明”이 세일 重要한 順位로 나타나고 対照群에서는 계속해야 하는 “治療·檢査 및 看護에 대한 説明”으로 나타나 患者들이 알고자 하는 情報의 内容에는 兩群사이에 뚜렷한 差異를 볼 수 없었다.

入院不安尺度(hospital anxiety scale)值가 兩集團 사이에 有り한 差를 보인 것은 沈⁶⁰⁾, Putt⁶¹⁾, Healy⁶²⁾, Redman⁶³⁾ 및 Egbert⁶⁴⁾ 등의 成績과 부합된다. 그러나 Keller⁶⁵⁾, Nield⁶⁶⁾ 및 Pride⁶⁷⁾의 成績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은 調査方法 및 対象의 差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本研究에서 入院患者에 대한 情報提供尺度의 平均值와 入院不安尺度와의 相関은 實驗群에서는意義 있는 逆相関을 보였으나 対照群에서는 有り한 相関을 나타내지 않은 成績은 情報提供이 患者的 入院不

56) N. J. Pender: Op. cit., p. 265.

57) 田: Op. cit., 1972.

58) J. S. Dodge: Op. cit., 1969.

59) D. T. Linehan: Op. cit.

60) 심치정: Op. cit.

61) A. M. Putt: Op. cit.

62) K. M. Healy: Op. cit., p. 67.

63) B. K. Redman: Process of patient teaching, st. Louis, C. V. Mosby Co., 1968.

64) L. D. Egbert and others: Op. cit., p. 827.

65) C. M. Keller: Op. cit.

66) M. A. Nield: Op. cit.

67) F. L. Pride: An adrenal stress index as a criterion measure for nursing, Nurs. Res., 17: 301, July-Aug. 1968.

안을 뚜렷이減少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적절한 意思疎通이 病自體에 関한 知識보다 患者的 不安解消에 더욱 效果의이라는 Smith⁶⁸⁾의 주장과 그리고 病院에서 시행되는 处置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患者에게 説明해 주는 것이 不安全感의 解消는 물론 恢復도 순조롭게 해 줄수 있다는 Myers⁶⁹⁾의 理論을 더욱 뒷바침해 준다고 생각한다.

VII. 結論

入院患者가 받은 情報의 量에 따라서 患者的 不安度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1975年 1月 初부터 3月末까지 慶北大学校 医科大学 附属病院에 4日以上 30日間 入院한 内科患者 100名을 實驗群 50名, 對照群 50名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다.

入院患者 情報提供尺度值는 情報提供을 받지 못한 對照群에 比해서 提供받은 實驗群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各群내에서의 性別, 年令別 및 教育程度에 따른 情報提供尺度值는 有意한 差를 認定할 수 없었다.

入院期間에 따라서 提供된 情報에 대한 滿足度는 差異를 볼 수 없었다.

說問의 項目別에 대한 重要度順位와 情報提供尺度와의 相関值는 實驗群에서 對照群에 比하여 有意하게 높았다.

入院患者들이 必要하다고 느끼는 情報에 대한 滿足度가 높을 수록 入院不安의 程度는 낮았다.

以上의 結果로 미루어 보아 情報를 많이 받은 患者群에서 不安度가 낮았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고 하겠으며 提供된 情報의 量은 入院患者 不安測定의 間接的인 尺度가 될 수 있고 이는 效果의인 看護業務의 評価로 看做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강봉규의 2명 : 간호연구법, 서울, 수문사, 1974.
P. 220.

김유경 : 한국간호 인력필요의 분석및 추계에 관한 일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권 2호 1973.
P.F. 15-29.

강윤희 : 간호기록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1호, 1974. P. 30.

김조자 : 수술전 심리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71.

심치정 : 소아의 수술전환자 교육이 신체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2호, 1974. P.P. 44-54.

전산초 : 내외과 간호학, 수문사, 1971. P. 31.

전산초 :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1호, 1974. P. 9.

전산초 외 2명 :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와 태도및 준비에 관한연구, 대한간호, 3호 59권, 대한간호협회출판부, 서울, 1972. 5-6월호, P.P. 18-30.

홍여신 : 간호행정및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제3권 5호, 대한간호협회출판부, 서울, 1974. 9-10월호 P. 49.

홍우순편저 : 간호학 : 학리와 실제, 대한간호협회출판부, 서울, 1969, P. 3.

한윤복 : 안위대책 간호가 수술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권 1호, 1972. P.P. 85-95.

Basic system, Inc.: Anxiety: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Programed instruction) AJN, 65:129-152, Sep. 1965.

Beland, L. L. : Clinical Nurs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Co., 1970.

Carson, Carolyn E. and Vernon, David T. A. : Measurement of informativeness of Hospital staff members, Nurs. Res., 22: 198-206, May - June 1973.

Dodge, J. S. : Factors related to patient's perception of their cognitive needs, Nurs. Res., 18: 502-513, Nov. - Dec. 1969.

Dodge, J. S. : What patient should be told, AJN, 72; 1852-1854, Oct. 1972.

Dye, Mary C. : Clarifying patients' communications, AJN, 63: 56-59, Aug. 1963.

Egbert, Lawrence D. : Reduction of postoperative pain by encouragement and instruction of patient, N. Engl. J. Medicine, 270: 825-827, Apr. 1964.

68) D. M. Smith: Op. cit., p. 69.

69) M. E. Meyers: Op. cit., p. 131.

- Ernest, D.: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hospital patient relationship: What the patient really wants from the hospital, Modern hospital, 83; 51-54, Sep. 1954.
- Iay, Stella I., and Anderson, Helen C.: Are nurses meeting patient's needs?, AJN, 63; 96-99, Dec. 1963.
- Healy, Kathryn M.: Does preoperative instruction make a difference?, AJN, 68; 62-67, Jan. 1968.
- Anis, I. L.: Psychological stress: psychoanalytic and behavioral studies of surgical pati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8.
- Johnson, Jean E.: Approches to the study of nursing questions and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Effects of structuring patients expectations on their reactions to threatening events, Nurs. Res., 21; 499-504, Nov. - Dec. 1972.
- Keller, Charlotte M.: Relationship of anxiety change and an information-giving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65.)
- Lagina, Suzanne Marek: A computer program to diagnose anxiety levels, Nurs. Res., 20: 484-492, Nov. - Dec. 1971.
- Linehan, Dorothy T.: What does the patient want to know?, AJN, 66: 1066-1070, May 1966.
- Lindman, Carol A.: Nursing intervention with pre-surgical patient, Nurs. Res., 21; 196-209, May-June 1972.
- Lucent Frank E. and Fleck Stephen: A study of hospitalization anxiety in 408 medical and surgical patients, Psychoso. Med., 34; 304-312, July-Aug. 1972.
- Meyers, Mary E.: The effect of Types of communication on patients reactions to stress, Nurs. Res., 13: 126-131, Spring 1964.
- Myers, Robert S.: Lack of liaison in hospital can impair the quality of patient care, Modern Hosp., 103: 122, Feb. 1966.
- Neylan, Margaret Prowse: Anxiety, AJN, 62; 110 - 111, May 1962.
- Nield, Margaret Ann: The effect of health teaching on the anxiety level of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Nurs. Res., 20: 537-541, Nov. - Dec. 1971.
- Pender, Nola J.: Patient identification of health information received during Hospitalization, Nurs. Res., 23: 262-267, May-June 1974.
- Pride, Frances L.: An adrenal stress index as a criterion measure for nursing, Nurs. Res., 17: 301, July-Aug. 1968.
- Pohl, Margaret L.: Teaching activities of the nursing practitioner, Nurs. Res., 14: 4-11, Winter 1965.
- Pratt, Lois and Others: Physicians' views on the level of medical information among patients, Am J Public Health, 47; 1277-1288, Oct. 1957.
- Putt, Arlene M.: One experiment in nursing adults with peptic ulcers, Nurs. Res., 19: 484-494, Nov. - Dec. 1970.
- Redman, Barbara K.: Process of patient teaching in nursing, St. Louis, C. V. Mosby Co., 1968.
- Schmitt, Florence E.: Psychological preparation of surgical patients, Nurs. Res., 22; 108-116, Apr. 1973.
- Seyle, Hans: The stress syndrome, AJN, 65; 97-99, Mar. 1965.
- Smith, Dorothy M.: Myth and Method in Nursing practice, AJN, 64; 68-72, Feb. 1964.
- Tarnower, William: Psychological needs of the hospitalized patient, Nursing outlook, 13; 28-30, July 1965.
- Vincent, Paulin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non-compliance; a theoretical approach, Nurs. Res., 20; 509-515, Nov. - Dec. 1971.
- Volicer, Beverly J.: Patients perceptions of stressful events associated with hospitalization, Nurs. Res., 23; 235-238, May-June. 1974
- Volicer, Beverly J.: Perceived stress levels of event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Nurs. Res., 22; 491-497, Nov. - Dec 1973.

*** Abstract ***

Effect of Informativeness on the Anxiety of Hospitalized Patients

Jung Ok Park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Yoon Hee Kang, Associate Professor)

Every patient, who enters the hospital has a potential for becoming anxious. The control of hospitalization anxiety experienced by hospital patient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ill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veness and hospitalization anxiety in order to give basic data for psycho-social aspect of nursing care for hospitalized patients.

One hundred patients admitted t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Jan. to June 1975 were sampl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fifty of experimental and fifty of control group.

The set of informations prepared by the investigator were given additionally to experimental group while the control group only received routine informations. Both groups were rated according to the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which consisted of 24 questionairs and 4 categories and Hospitalization Anxiety Scale one or two days prior to discharge from the hospita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0.01 level with experimental group showing higher mean value. Age, sex and educational states did not influence the mean values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in both groups.
2.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on the mean value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in both groups.
3. Rank differenc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n value of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he patient's perceived were revealed significant at 0.01 level in all 4 categories such as admission discharge,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ies, diagnostic test, diagnosis and prognosis, health teaching for the patient and family in experimental group. While, only two categories such as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ies and health teaching for the patient and family in control group were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
4. Mean value of Hospitalization Anxiety Scal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at 0.05 level with the experimental group showing lower Hospitalization Anxiety Sca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Hospitalization Informativeness Scale and Hospitalization Anxiety Scale were revealed significant at 0.01 level in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control group.